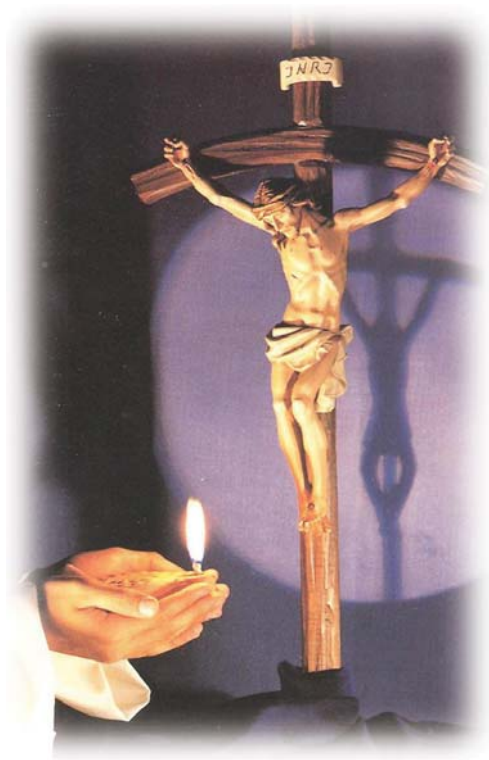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2년 2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미래를 준비하라

시작성가

진행자 진행자 가톨릭 성가 421장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1,2절을 부릅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은혜로우신 하느님, 올 한 해도 당신을 찾고 갈망하게 하소서.
- 사랑 가득하신 주님, 당신 안에 머물게 하소서.
- 오소서, 생명의 영이시여.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현경 선교사
-예수님 사랑에 반해
결혼도 잊고 선교 투신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루카 복음 16장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 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 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백 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쉬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백 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여든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빚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없을 때는

진행자 1) ‘악은 청지기’처럼 민첩하게 종말 위기 대책을 세운다면 지금 나에게 있어서 위기는 무엇이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자 합니까?

2) 나는 세상에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3) 올 한 해 동안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방법으로 올 한 해가 마지막 시간이라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장래를 대비하여 현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직하게 처신한 집사를 칭찬하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디로 막다른 골목에서 돈으로 사람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그의 부정직함이 아니라 아직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선견지명’으로 장래를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을 때 세속의 자녀들은 세속의 방법으로 그렇게 철저히 대비하거늘,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방법으로 대비하지 않고 무엇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돈, 돈과 사람 중에 당연히 사람이 먼저이며 소중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눈앞에 닥치면 돈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희망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현실이 주어지면 하느님보다도 물질을 먼저 택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교육이나 피정이 있어도 세상살이에 너무 바빠집니다. 그래서 주일 미사에 참례하는 것으로 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나마 ‘주일 미사에 참례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참으로 영원한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은 한 시간의 수고와 땀을 행복으로 여깁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이며 마땅히 피해야 할 바가 어떤 것인지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을 걸어서라도 주님을 찾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느님 안에서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합니다 2』 반영역 신부님의 글에서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합시다.
(실천사항을 정한 후 본당 공지사항과 기타토의를 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성가 421장 3절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를 부릅시다.

궁금
했어요

완전한 통회를 하지 않아도 고해성사가 유효합니까?

고해성사의 유효성을 위해서 완전한 통회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통회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며 영혼에게 고통을 주는 죄에 대한 저항입니다. 통회의 마음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불완전한 통회가 회개의 의미를 충분히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죄에 대한 단절을 원하고 하느님을 향해서 돌아서려는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교회는 마음 안에 정의의 샘이신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씨앗과 원리를 가진 점을 인정하여 완전한 통회가 아니어도 통회의 효과(죄들의 용서)와 죄인에 대한 사죄를 통해서 주어지는 사랑과 은총의 선물을 허락합니다. 이 ‘선물’의 은총으로 꼭 완전한 통회에 이를 것을 교회는 믿는 것이지요. 통회는 저지른 죄에 대한 꾸념도 한탄도 아닌 ‘참’ 되고 ‘총체적으로 살아낼’ 약속의 다짐이지만 이를 넘어선 ‘은총에 바탕’을 둔 구원적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의 차원에서는 모자랍니다. 용서는 완전한 통회를 전제로 하니까요. 고백이란 두려움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에 상처를 준 것을 가슴 아파하는 일이며, 자신이 얻은 상처를 주님 사랑으로 치유 받는 은혜의 시간이니 무조건 통회를 시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사 집전자들이 신자들의 양심이 불완전한 통회에 머물지 않고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고 있으니 염려 놓으시고요.



(『소곤소곤 열두 알겠습니다』, 장재봉)

가야산보다 더 깊고 아름다운 산

합천본당 3구역 1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사진을 바라보는 진지한 눈빛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나눔이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어찌나 열심히들 나누시는지, '이 그림의 의도는..'에서부터 '그게 아닌 것 같고..'까지 공부하시듯 서로 물어가며, 답해가며 나눔에 여념이 없으셨지요. 시작부터 고무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합천본당 3구역 1반.

복음 말씀 나눔에도 모두 적극적이셨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겠다는 분, 기다림의 시간 동안 사랑하는 마음, 겸허한 마음으로 생활해야겠다는 분, 이 말씀으로 인해 대림을 더 깊이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시는 분 등 다양하게 나누어 주셨지요. 대림동안 외적인 분주함으로 인해 내적인 마음의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 같다시던, 함께 자리하신 수녀님의 소탈한 자기고백은 나눔을 더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다른 이에게 행복을 준 경험에 대한 아우구스타 반장님의 훈훈한 나눔도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귀가 어두우셔서 늘 집에서 주무시기만 하시던 할머니께서 보청기를 가지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신 이야기에 모두의 얼굴에 함박꽃이 피었습니다. 이어 판공성사 등 본당 공지사항이 이어지자 요셉 형제님께서는 판공성사의 유래와 의미에 대한 꼼꼼한 설명을 잊지 않으셨지요.

3구역 1반의 자랑거리를 여쭙었더니 모두 입을 모아 일치와 화합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3,4년 전 반모임 활성화를 위해 4개 구역 12반으로 구역 개편이 있던 터라 지금처럼 모이게 된 것도 그 정도의 시간 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모니카 구역분과장님께서도 반장모임보다 더 분위기가 좋다며 칭찬하셨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모이다보니 대부분의 반원들이 지역부장이나 부회장, 사목회장 등을 지내신 분들이셨다고 합니다. 본당 내 직책이 신앙의 정도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본당활동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이셨던 분들이 모이다보니 분위기도 지금처럼 활발해진 것이지요.

모임 날이면 어김없이 모든 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참석을 권유하시고, 무엇보다 기쁘게 모임에 임하시는 아우구스타 반장님에 대한 칭찬도 쏟아졌습니다. 예비 신자 때부터 반모임에 나오긴 했었지만 냉담에 들어갔던 때 다시 성당으로 자신을 이끌어 준 것이 바로 지금의 공동체라고 말씀하신 글라라 총무님께서는 반모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모임을 마치고 집에 가면 너무 뿌듯하시며 반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십니다. 모든 반에서 미사 후 차봉사를 하지만 이런 일치의 힘으로 특별히 3구역 1반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본당 전례봉사를 맡아 하시고,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야외에서 친교의 시간을 가지신다고 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모임 내내 별다른 말씀 없이 선한 미소로 앉아 계시던 모니카 자매님께 자꾸만 눈이 갔습니다. 말씀 나눔 때에 어디엔가 밑줄을 자주 긋고 계시기에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다른 분들이 마음에 와 닿았던 말씀들이었습니다. 나의 나눔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분들이 새기셨던 말씀에 까지 밑줄을 그으시던 모니카 자매님. 다른 이의 나눔을 흘려듣지 않고 작은 이야기도 내 것으로 삼으려는 그 마음에서 이 공동체의 또 다른 힘을 발견했습니다. 열성을 다해 말하는 사람과 귀 기울여 듣는 사람, 마음을 다해 이끌어주려는 이와 그에 기쁘게 응답하며 따르려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3구역 1반.

멀리서 산을 보면 큰 나무들로만 이루어진 것 같지만 막상 산에 들면 크기도 생김새도 서로 다른 나무와 풀들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에서부터 이렇듯 작은 나눔 하나에도 귀 기울이시고, 마음에 담으시려는 분들이 계신 이 곳이 바로 큰 숲이고, 큰 산이구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습니다. 가야산보다 더 깊고 아름다운 산을 보고 온 듯한 합천본당 3구역 1반. 그 산에 하느님을 찾는 더 많은 영혼들이 찾아들 수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합천본당 3구역 1반 소공동체〉

복음나누기 7단계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복음...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